

■ 2025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사업 문학 분야 심의 총평

-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: 2025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문학 분야 지원심의
- 회의일시 : (1차) 2025년 1월 14일(화) 14:00~16:00
(2차) 2025년 2월 5일(수) 14:30~15:30
- 회의장소 :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
- 심의위원명(가나다순) : 구효서, 문태준, 송수연, 심진경, 정대훈

청년예술가도약지원 사업은 청년예술가의 기획·창작·발표를 지원하고 예술가 간 협업 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 기존 39세 이하 예술가를 지원했던 것에 비해 34세 이하의 예술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된 것은 사업명 그대로 문화 예술 창작에 입문한 '청년' 예술가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한 의도였습니다.

문학 분야에는 총 34건이 접수되었으나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2건을 제외한 32건을 대상으로 1차 심의를 진행했습니다. 심의위원들은 개별 사업을 모두 전수 검토하였고 이중 총 13건(개인 10건, 팀 3건)을 선정하여 2차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.

1차 심의 시에 신청자의 사업 수행역량이 가장 중요한 심의 기준인 만큼, 심의위원들은 우선 기존 작품 발표 실적을 토대로 신청자가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, 2차 심의에서는 작품에 대한 기대와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습니다.

이 외에도 문학의 수월성 등에 대한 심의위원 간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총 5건의 사업을 지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.

올해 지원신청 사업에는 전통적인 문학 창작의 영역보다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, 이는 지자체나 타 기관에 포괄적이고 유사한 사업이 많아지면서 해당 사업 경험을 토대로 유입된 효과로 보였습니다. 새로운 채널과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는 긍정적으로 보았지만,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주체의 참여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한편 남았습니다.

문학에 뜻을 두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업 주체들을 만나고 확인할 수 있어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이번 지원에 선정된 분들 개인의 예술 역량을 증대하고 나아가 한국 문학의 발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심의위원 일동